

과학중점반, 고교학점제에서도 유지되나요?

중3 학부모입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에서 과학중점반이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서울은 유지, 부산은 폐지 시·도교육청마다 달리 운영

일반고 중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 수학 정보 교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서울의 경우 과학중점학교에서 중점 과정을 제공하는 과학중점학급(반)을 따로 운영하며, 고교 지원 시 0단계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 해당 학급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정고 이세훈 교사는 “과학중점반은 과학중점학교에서 중점 과정을 제공하는 학급을 뜻하며, 3년간 이수하는 교과목 중 45% 이상을 수학 과학 정보 교과로 이수해야 한다. 이공 계열 진로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선호도가 높다”라고 전합니다.

현재 과학중점학교 운영 방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학중점학교를 계속 운영하며, 고교학점제에서 인근 고등학교의 과학 수학 정보 교육 거점학교의 역할도 병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최승규 장학사는 “고교학점제하에서 과학중점학교는 공동 교육과정과 개방형실험실, AI-데이터 기반 융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 재지정 평가가 3년마다 진행되는데 내년엔 재편될 예정이다”라고 밝힙니다.

반면 부산은 올해 고1부터 과학중점학교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송윤진 장학사는 “내년부터 과학중점학교가 폐지된다. 현재 고2까지 운영한다. 과목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과학중점학교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전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능형과학실 100여 개를 운영하며 일선 고교의 실험·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중점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운영하므로 고교 지원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취재 김은진 리포터 ikemer@naeil.com

도움말 송윤진 장학사(부산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 이세훈 교사(서울 선정고등학교) · 최승규 장학사(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